

개신교인 63%, 기도하면 용서하는 마음 생긴다!

개신교는 사랑의 종교, 용서의 종교이다. 사랑과 용서는 갈등과 다툼이 이미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자. 한국은 현재 대다수의 국민이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지할 만큼 사회 갈등수준이 높은 상태이다. 대체로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높지만 갈등 영역은 젠더, 세대, 빈부, 지역 등을 막론한다. 이와 같은 사회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사회 구성원들 간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개신교인은 용서에 대해 어떤 경험과 인식을 하고 있을까? 또한 한국교회는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기독교 연구기관인 기독교인문학연구원/이음사회문화연구원,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함께 최근 '갈등과 용서 및 화해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번호에서는 개신교인의 사회 갈등 및 용서, 화해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교회가 사회 갈등 해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갈등과 용서 및 화해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 조사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표본 규모	총 1,000명 (유효 표본)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표본 추출 방법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표본 오차	무작위 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조사 기간	2023년 12월 20일 ~ 2024년 1월 4일
조사 의뢰 기관	기독인문학연구원, 이음사회문화연구원
조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분석 :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진행 : (주)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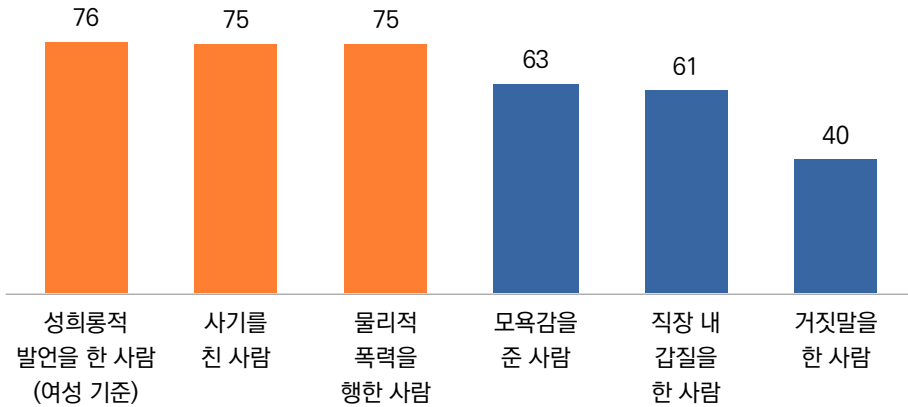
01

[용서 인식 및 경험]

개신교인 4명 중 3명, '성희롱', '사기', '폭력' 용서 못 해

- 개신교인은 자신이 사기, 폭력, 갑질 등을 당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얼마나 용서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용서할 수 없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람(여성 응답자 기준)' 76%, '사기를 친 사람' 75%, '물리적 폭력을 행한 사람' 75%로 세가지 유형이 비슷하게 높았다.
- 전반적으로 신체적 위해, 경제적 손실 등 법적 처벌 영역의 행위일수록 용서 불가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자신이 당한 행동별 용서 불가 비율* (개신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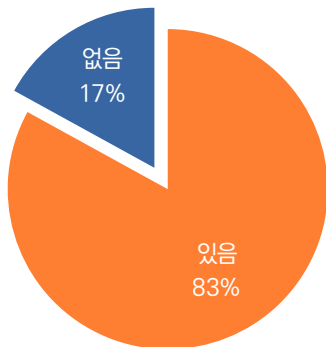


*4점 척도로 '절대 용서할 수 없다 +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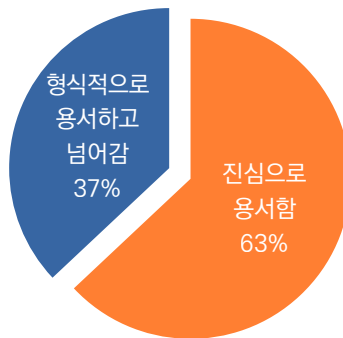
용서 경험 개신교인, '상대방을 진심으로 용서했다' 63%!

- 성인이 된 이후,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개신교인의 대부분(83%)이 용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 용서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상대를 어떻게 용서했는지를 물었더니 '진심으로 용서했다' 63%, '형식적으로 용서하고 넘어감' 37%로, 3명 중 2명 가까이 진심으로 용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용서의 경험 (개신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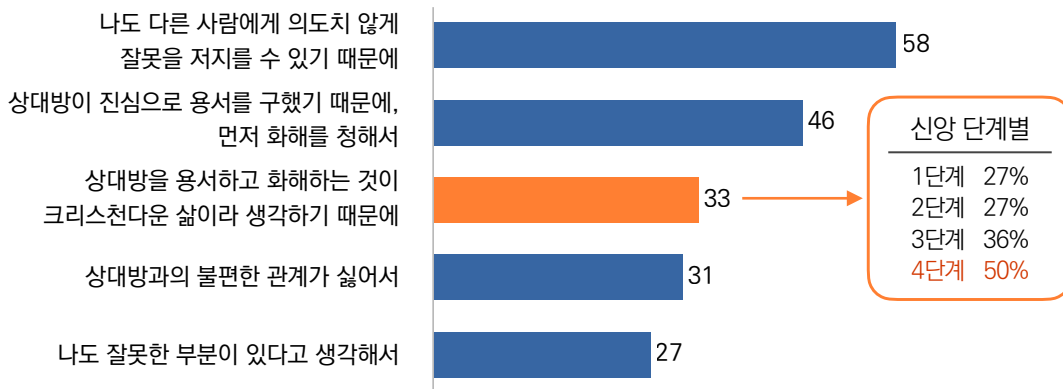
[그림] 용서의 형태 (용서 경험 개신교인)



개신교인 3명 중 1명, '용서가 크리스천다운 삶이어서 용서했다'

- 이번에는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동기를 물었다. 그 결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가 58%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이어 '상대방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46%, '상대방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크리스천다운 삶이라 생각해서' 33% 등의 순이었다.
- 신앙이 용서의 동기로 작용한 '상대방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크리스천다운 삶이라 생각하기 때문에'의 응답 비율은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용서 동기(용서 경험 개신교인, 1+2순위, 상위 5위, %)



Note) 신앙단계별 설명

1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2단계 :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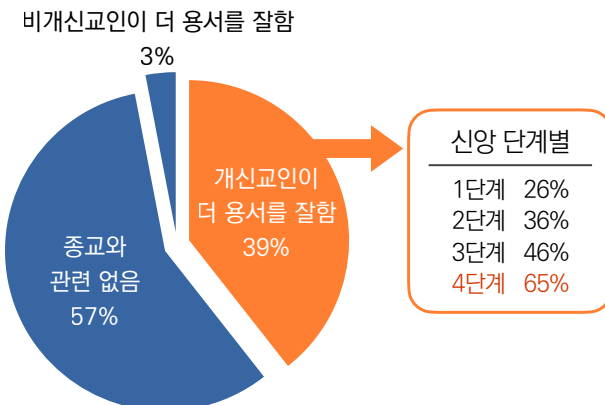
3단계 :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4단계 :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 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02 [종교/신앙과 용서 인식] 개신교인, 비개신교인보다 훨씬 더 용서 잘한다고 생각!

-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간 '용서' 행동에 있어 차이가 있을까? '개신교이든 비개신교인이든 차이 없다'는 인식이 57%, '개신교인이 더 용서를 잘한다' 39%, '비개신교인이 더 용서를 잘한다' 3%로 '차이 없음'을 빼고 비교하면 비개신교인보다는 개신교인이 더 용서를 잘한다는 인식이 훨씬 강했다.
- '개신교인이 더 용서를 잘한다' 응답률은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용서 비교* (개신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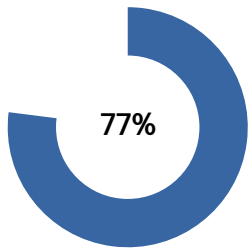
*비/개신교인이 더 용서를 잘함: '더 잘 한다 + 더 잘 하는 편이다' 비율

개신교인 63%, 기도하면 용서하는 마음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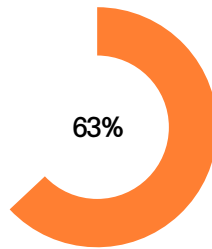
- 종교와 신앙은 용서와 어떤 상관성이 있거나 혹은 용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종교/신앙과 용서에 대한 문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율을 확인했다. '개신교인이어도 상황에 따라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다'에 개신교인 10명 중 8명 가까이(77%)가 동의해 개신교인일지라도 무조건적 용서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타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기도를 하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63%가 '그렇다'고 응답해 '기도가 용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종교/신앙과 용서 인식 (개신교인, '매우+대체로 그렇다' 비율*)

개신교인이어도 상황에 따라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타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기도를 하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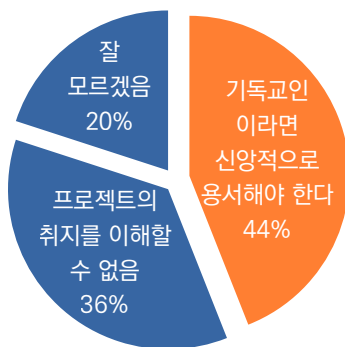
*4점 척도

가족 죽인 가해자, 나라면 용서할 수 있을 것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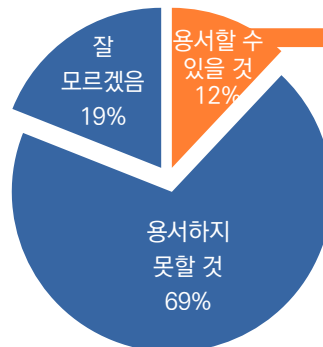
- '용서 프로젝트'란 자기 가족을 죽인 가해자를 신앙적인 이유로 용서하겠다는 피해자 가족의 모임을 말한다. '용서 프로젝트의 취지'의 이해와 '자신의 경우라면'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의견을 물었다.
- 먼저 '용서 프로젝트의 취지'에 대해서는 '취지를 이해한다' 즉, '기독교인이라면 신앙적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44%로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36%)보다 많았다. 그러나 '만약 나라면'으로 질문을 바꾸면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69%)가 '용서할 수 있을 것'(12%)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내 가족을 죽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란 응답이 12%나 돼 주목된다. '나라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은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용서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개신교인)

취지에 대한 이해



만약 나라면



신앙 단계별

1단계	7%
2단계	11%
3단계	14%
4단계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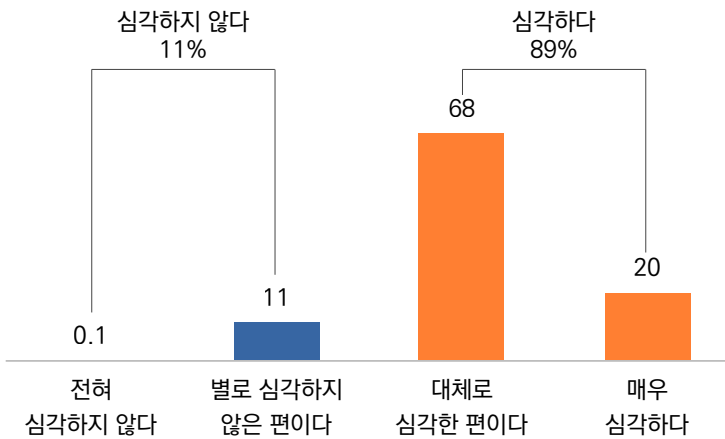
03

[사회 갈등에 대한 인식]

개신교인 대다수, 우리 사회 갈등 '심각하다'고 인식!

-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고 생각하는지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물었다. 그 결과, 개신교인 대다수(89%)는 '심각하다'고 인식했고, 그중 '매우 심각하다'가 20%로 5명 중 1명은 사회 갈등에 대한 위기의식이 매우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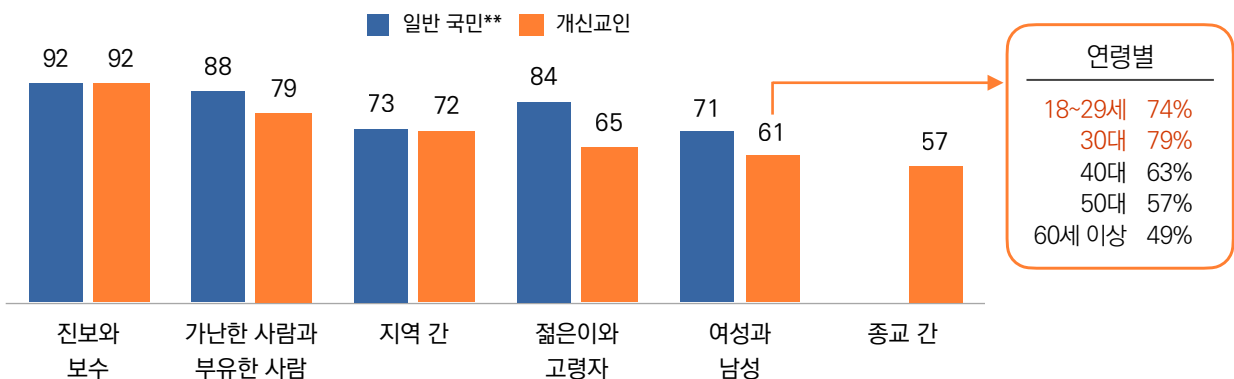
[그림] 사회 갈등 심각성 (개신교인, %)



개신교인, 일반국민보다 세대갈등 인식 낮아

- 개신교인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 집단별 갈등 정도는 어떠한가? 사회 각 집단 간 갈등의 심각성 정도를 평가한 결과 '진보와 보수 갈등'이 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빈부 갈등'(79%), '지역 간 갈등'(72%) 순이었다.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간 갈등'은 2030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 국민 대상의 유사한 질문과 비교해 보면 '진보와 보수 갈등'이 동일하게 가장 높았고, 전반적으로 개신교인이 일반 국민에 비해 갈등의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고 있었는데, 특히 '젊은이와 고령자 간 갈등'과 '여성과 남성 간 갈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10%p 이상 낮게 나타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림] 사회 집단별 갈등 심각성 인식 ('매우+약간 심각하다' 비율*,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집단별 갈등인식 - 2023년] 이념갈등, 여전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갈등 축', 2023.05.23.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3.05.12.-0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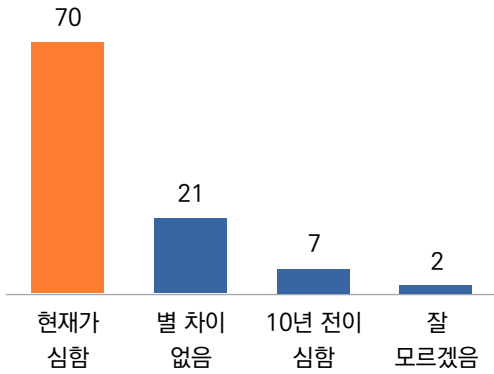
*4점 척도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은 '부유층과 서민층', '수도권과 지방'은 '영남과 호남', '젊은이와 고령자'는 '기성세대와 젊은세대'가 원 질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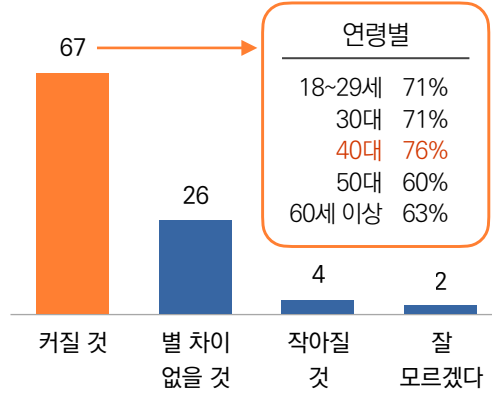
개신교인 3명 중 2명, '우리 사회 갈등 앞으로 더 커질 것'!

- 사회 갈등 수준과 흐름을 파악하고자 '10년 전 대비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와 '향후 사회 갈등 변화 예상'에 관해 물었다. 개신교인 10명 중 7명(70%)은 '현재가 10년 전보다 심하다'고 응답해, 사회 갈등이 과거 대비 현재 더 심화했다고 느끼고 있었고, 앞으로 사회 갈등에 대한 전망 역시 3명 중 2명(67%)이 '커질 것'이라 응답해 비관적이고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특히 40대의 경우 사회 갈등이 '커질 것'이라 예상한 비율이 4명 중 3명(76%)에 달했다.

[그림] 10년 전 대비 사회 갈등 정도 (개신교인, %)



[그림] 향후 사회 갈등 예상 (개신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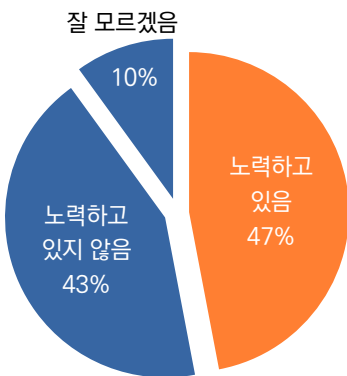
04

[한국교회와 사회 갈등]

'한국교회,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47%!

- 한국교회가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개신교인들에게 물었다. 그 결과, 개신교인의 47%가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 43%보다는 약간 더 높았으나 절반에는 못 미쳤다. 한국교회가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신교인이 상당수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한국교회의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 정도 (개신교인)



개신교인, 사회 갈등을 위한 '종교단체'의 노력 높이 평가!

- 우리 사회 갈등 완화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체를 물어 일반 국민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집단별 순위를 매겼다.
- 개신교인의 경우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체'로는 오차범위 이내에서 '종교단체', '시민단체', '개인'이 가장 높았다. 반면 '일반 국민'은 '교육계'가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가장 노력한다고 인식했고, 이어 '기업', '정부' 등의 순이었다. '종교 단체'는 4위를 차지해 개신교인들의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Note) 일반 국민의 경우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정도를 절대평가(5점척도)로 질문하였으며, 상대평가로 묻은 개신교인 조사와 질문방식이 다름에 유의할 것

[표]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 주체 (상위 5위)

순위	개신교인 (1순위 응답률)	일반 국민 (항목별 '매우+약간 노력한다 비율*')
1	종교단체 (22%)	교육계 (35%)
2	시민단체 (20%)	기업 (31%)
3	개인 (19%)	정부 (30%)
4	정부 (16%)	종교단체 (28%)
5	언론 (6%)	시민단체 (28%)
6	기업 (4%)	언론 (27%)
7	국회 (4%)	법조계 (25%)
8	교육계/기관 (4%)	노동조합단체 (20%)
9		국회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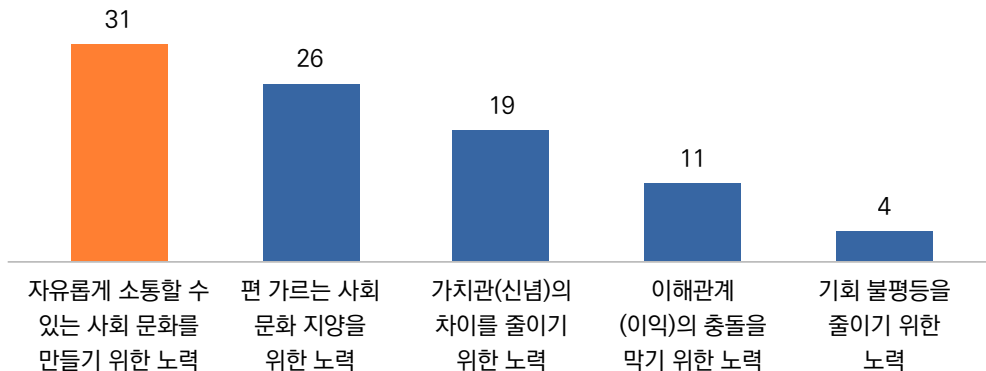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4.01.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221명, 면접조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3.09.01.~10.31.)

*5점 척도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 노력'!

- 한국교회는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사회 문화 만들기 위한 노력'이 31%로 가장 많았고, 이어 '편 가르는 사회 문화 지양을 위한 노력' 26%, '가치관(신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 19% 등의 순이었다.
-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1순위로 꼽은 것은 한국교회가 '편을 가르고 배타적인 이미지'를 먼저 털어내고, 교회 내부에서부터 이념, 세대, 남녀 등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한국교회의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해야 하는 것 (개신교인, 상위 5위, %)



이번호 요약

1. 개신교인 대부분 용서의 경험 있어

- 개신교인의 83%가 용서의 경험이 있으며, 이 중 63%가 '진심으로 용서했다'고 응답했다.

2. 신앙이 용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 개신교인은 개신교인(39%)이 비개신교인(3%)보다 훨씬 더 용서를 잘한다고 인식한다.
- '기도하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에 65%의 개신교인이 동의했다.

3. 가족 죽인 가해자, 나라면 용서할 수 있을 것 12%

- 자기 가족을 죽인 가해자를 신앙적인 이유로 용서하는 모임의 '용서 프로젝트'에 대해 '기독교인이라면 신앙적으로 용서해야 한다'가 44%로 '이해할 수 없다'(36%)보다 높았다.
- '만약 나라면 가족을 죽인 가해자를 신앙적인 이유로 용서하지 못할 것'이 69%로 다수를 차지했으나, '용서할 수 있을 것'이란 응답도 12%나 돼 주목된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영상\] 우리사회의 갈등, 용서, 화해에 대한 기독교인 인식조사 결과 발표회 \[기독교인문학연구원\]](#)
- ▶ [\[기사\] 사라야,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실 리 없어! \[국민일보 더미션\]](#)
- ▶ [\[서적\] 용서와 화해 그리고 치유 \[새물결플러스\]](#)

관련 성경 구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14~15)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누가복음 17:3)

목회 적용점

1. 용서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다만 가해자의 진정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

2. 용서하지 못해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한 관심 필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용서는 값싼 감정도 아니고 종교적 만족을 얻기 위한 행위도 아니다.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복구되고 정신적 상처가 해결되어야 가능한 어려운 문제이다. 피해자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가해자에 대한 용서와 피해자 자신의 치유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교회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